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6일 월요일 음 8월 18일 (10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22-23°C로 시작하고 낮 최고 기온은 26-28°C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까지 제주 남쪽 연바다는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성산	20%
20%	고산	20%
20%	서귀포	20%

해돋이 06:17	달뜨기 20:02
해지기 18:40	달지기 07:48
물때 만조 11:45	간조 06:10
	18:17

주간예보

생활·안전 기상정보

내일	맑음	22/26°C
모레	구름 많음	23/27°C

식독독지수	자외선지수
위험	높음



월드뉴스

사우디 석유시설 가동 중단, 유가 상승 우려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랍코의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14일 (현지시간)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성 사진에서도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로 화재가 크고, 사우디 당국이 일부 시설의 가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원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압둘라지드 빈 살만 에너지장관은 이날 국영 SPA 통신을 통해 반군 공격을 받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시설 두 곳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이런 조치로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



14일 드론 공격에 불이 난 사우디 석유시설.

체 산유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생산시설 폐쇄로 하루 50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이나 또 다른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랍코 측은 CNN 비즈니스에 "며칠 내 생산량이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몇주 동안은 고객사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원유를 비축해둔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료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문 미 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까지 연 10% 안팎의 확정수익을 보장이라는 귀가 솔깃해질법한 분양형호텔 광고를 받고 투자했다 낭패본 이들의 아우성이 제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약속받은 수익은 커녕 대출이자 걱정하는 이들도 적잖은데, 거짓 광고로부터 투자자(수분양자)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 수단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제재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정도로,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결국 민사소송 뿐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인 분양형호텔은

분양형호텔 과장광고의 덫에 우는 소비자들

2012년 정부가 관광숙박업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용적률 우대 등 규제를 완화하며 생겨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제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했고, 분양형호텔 시행사의 과장광고까지 더해지며 관심을 끌었지만 우후죽순 건축되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중인 분양형호텔은 64곳, 객실수는 1만3000여실에 이른다. 아파트처럼 객실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형호텔은 수분양자들이 각 객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통상 시행사가 지정한 운영사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호텔 운영수익을 지급받는 구조다. 최근 제주 곳곳에서 불거지는 분양형호텔을 둘러싼 분쟁은 낮은 객실당 동률로 분양 당시 약속한 확정수익을 지키지 못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광고가 과장됐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내세운 운영

사와 체결한 위탁관리 내용이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거나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으로 또다른 운영사를 내세우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분양형호텔 건물에서 2개 운영사가 객실을 나눠 숙박업 영업신고 해 2개 간판이 걸리고, 각각의 프런트를 운영하는 복수영업 호텔들이 있다. 정부는 과거 통상적으로 숙박업 한 곳당 하나의 영업자만 두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 소유주 동의와 위생상 문제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영업신고를 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복수영업이 가능해졌다. 서귀포시에서는 복수영업하던 분양형호텔 2곳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지난 7월 폐쇄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분양형호텔을 둘러싼 잡음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

서 분양형호텔 등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3000㎡ 미만이라도 30일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2일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양형호텔을 최소한의 법 적용 범위에 두겠다는 취지인데, 수분양자 보호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분양 사업자의 거짓·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분양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없으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 국회도 분양형호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입법을 통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열린마당

풍력자원 이익금 활용방안 제안해 주세요

청렴이 주는 가치



이 현 탁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최근 버스를 타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태양과 바람이 움직이는 발전소'라는 노랫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라는 노래다. 제주를 바람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를 통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경감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풍력발전이 탄소 없는(Carbon Free) 섬 제주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대안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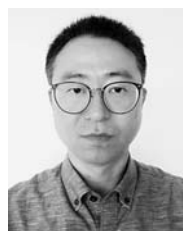
풍력발전은 1998년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했지만 모두에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개발 이익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편중되

고, 커다란 풍력발전기는 자연경관을 변형하고 소음을 일으키며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지하수와 같이 바람 또한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해 제주특별법에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천명하고 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조성했고, 지난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매년 40억원 상당의 재원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기금사업에 좀 더 알리고 발전시키고자 시민제안을 공모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 제주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대안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복지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진 종 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공직에 들어오며 가장 먼저 받는 신규 임용자 교육에서 청렴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뭐 이런 당연한 교육을 굳이 시간을 들여가며 강의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야말로 오히려 일상에 묻혀 잊어버리는 것 같아 항상 돌이켜 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근래 언론에 언급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청렴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을 수 없다.

청렴이라는 국어사전의 말 뜻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은 그 말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텐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욕망

에 눌러 지키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 부정과 부패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하면 사회 전체가 그 청렴함을 바탕으로 검열이나 감찰업무보다 더욱 생산적인 업무에 정진할 수 있게 돼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 본다.

청렴이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그것 또한 청렴의 기본이자 바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청렴은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뚝뚝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청렴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담겨 있다. 성실한 근무도 청렴이 기반이 된 후에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청렴의 의미를 새기고 스스로 다스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아닌가 한다.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제주 최대 편백 숲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 흑염소 먹이들이 (1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술불구이 / 떡갈비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